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HOPE IS OUR ONLY WING
가제 : 희망만이 날개가 될 수 있어
저자 : Rutendo Tavengerwei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2019년 CLIP 카네기 메달 후보

* “삶을 뒤흔든 위기를 강인한 정신으로 대처하는 인물들을 보여주고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감정의 흐름을 그린 흡입력 있는 소설” - 「커커스 리뷰」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생각 밖에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희망이나 낙관적인 생각 같은 건 떠올릴 수 없을 때도 가능성과 희망의 강렬한 빛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익숙하고 편안했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학교에 억지로 다니게 된 샤미소는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던 우울한 마음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그 희망의 빛을 조금씩 발견한다. 놀랍게도 샤미소의 눈이 그쪽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건 누구보다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아이,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가망 없는 싸움을 벌이는 같은 반 친구 탄야였다.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부정부패로 찌든 정치로 나라 전체가 휘청대던 2008년 짐바브웨를 배경으로 한 이 데뷔 소설에서 작가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글로 우리를 생경한 아프리카로, 작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국으로 데려간다.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저자는 고되고 힘든 현실을 미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계속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희망이며 그 힘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샤미소와 탄야의 특별한 우정과 두 소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 보여준다.

정치부 기자인 샤미소의 아버지는 대선을 앞둔 짐바브웨의 상황을 취재하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난 정황에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샤미소를 데리고 서둘러 짐바브웨로 온 어머니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현실과 너무 어릴 때 떠나 그곳 생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낯설어하는 딸을 달래고 위로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남편의 목숨을 빼앗은 수상한 사고의 전말을 추적해야 하는 모든 짐을 떠안는다. 오래 전 선교사들이 세웠다는 고등학교에 우선 샤미소를 전학시킨 후, 어머니는 취

재 온 남편을 도왔던 동료 제레미야의 도움을 받아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샤미소는 전학 첫 날부터 영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깔깔대며 비웃는 아이들 틈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스꽝스럽게 영국 영어를 흉내 내면서 빈정대는 아이들이 태반인 교실에서 눈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몰라 옆드려 울기만 하던 샤미소는 문득 다가온 다정한 음성엔 고개를 든다. 자신을 탄야라고 소개한 그 아이는 어차피 학교에 계속 다니려면 친구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쾌활하게 말을 건네며 우물쭈물하는 샤미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탄야가 좋은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빠도 없고 허름한 움막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런 허름한 학교에 다니는 현실이 다 짜증나서 선뜻 탄야의 손을 잡지 못하던 샤미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탄야에게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단짝 친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샤미소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된다. 탄야가 암 투병 중이며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이었다. 샤미소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죽음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탄야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쩌면 나아질 수 있다는 탄야의 깊은 확신은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감정을 마음 속에 꽂꽂 물어두기만 했던 샤미소에게 마침내 그 감정을 꺼내어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제야 샤미소는 혼자 슬픔에 빠져 외면하려고 했던 것들, 엄마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진실과의 싸움에 함께 하려면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몰아치는 두려움과 끔찍한 슬픔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샤미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아빠가 사고로 떠난 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책가방 속에 누군가 넣어 놓은 노란 봉투를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내 그대로 넣고 다닌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샤미소는 시간이 한참 흘러 제레미야 아저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된다. 아빠는 얼마 전 신임 총리로 선출된 사람이 뇌물을 받고 힘 없는 농민들에게서 빼앗은 농장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불법으로 나누어 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폭로하려던 참이었다. 세상에 알려지면 총리 자리는 물론 정치 생명이 다 끝난다는 사실에 벌벌 떨던 당시 총리 후보가 폭로를 막기 위해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게 된 샤미소의 아빠는 단서를 남겨두었는데, 샤미소의 책가방에 든 봉투가 바로 그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샤미소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봉투는 어느 날 교실 바닥에 떨어졌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총리의 딸 파이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부정 행위를 제 눈으로 확인한 파이다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 봉투를 아빠 사무실에 몰래 떨어뜨려 놓지만 결국 봉투는 돌고 돌아 제레미야의 손에 들어왔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탄야가 절대 놓지 않았던 희망은 불행처럼 이렇게 예고 없이 환하게 찾아올 수 있음을 샤미소는 비로소 온 마음으로 이해한다. 용기와 희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멋지게 그린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텐도 타벤거와이(Rutendo Tavengerwei)는 짐바브웨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와테르스란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소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세계무역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제목 : GRANNY MAGIC

가제 : 할머니의 마법

저자 : Elka Evalds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분량 : 약 150 페이지 (미정)

장르 : 미들 그레이드 판타지



*** 핀란드 출신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기발한 흑백 삽화가 돋보이는 데뷔작 - 뜨개질하는 할머니,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는 물건들이 등장하는 사랑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흔해빠진 시시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월도 ‘마법 스웨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늘 뜨개질 바늘을 바빠 움직이던 할머니는 웃이며 모자, 신발, 양말은 물론 차 주전자부터 설탕 통, 접시, 안경 통, 심지어 우산까지 정말 모든 물건을 뜨개질로 만들어내는 재주꾼이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월의 집이나 할머니 집안에는 할머니가 만든 물건들로 가득해서 그 특별함도 몰라본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엄마를 돕던 월은 수십 개쯤 되는 장갑과 머플러 위에 놓인 그 스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얼른 입어 보려는 월을 보며 엄마는 아홉 살이나 됐으니 작을 거라고 놀렸지만 두 팔을 끼우는 순간 맞춤 옷처럼 꼭 맞아서 둘다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저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월은 한참 지난 후에야 이 스웨터에 할머니의 손길과 함께 마법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월은 강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모직 공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뜨개질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니팅턴’이라는 이름답게 원래 이 마을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독특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온갖 물건을 만들어 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문을 닫고, 뜨개질은 월의 할머니처럼 나이 지긋한 분들의 취미로만 남아 있었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까지 붙은 걸 보면, 분명 누군가 공장을 재정비해서 가동할 계획인 건 분명해 보였다. 엄마와 월의 궁금증은 잠시 후 해결된다. 새 주인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자신을 재스퍼 피철티라고 소개한 낯선 남자는 수년 전부터 할머니와 절친한 사이였다고 이야기했다. 월은 애써 웃는 얼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엄마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예의 바르게 조용히 지켜보았다. 참 이상하게도, 재스퍼는 조금 전 월의 집을 찾아온 한 무리의 할머니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마틸다 할머니가 뜨개질해서 만든 물건을 뭐든 하나라도 갖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잊고 있었던 스웨터를 발견하고 새삼 반가워했던 월은 자신처럼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찝찝했다. 동네 할머니들은 방금 전에 유품을 다 정리해서 중고품 가게에 다 갖다 주었다는 엄마의 말에 심하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재스퍼 역시 월의 집 거실 소파에 놓인 쿠션을 거머쥐면서 ‘이거라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엄마아빠가 대답을 못하는 사이에 월이 안된다고 고함쳐서 겨우 무마시키긴 했지만, 재스퍼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변에 공장과 가게를 열 계획이라는 설명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그는 대문에서 배웅 인사를 건네는 아빠가 못본 사이 열쇠와 자질구레한 물건을 보관하는 통 속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아무도 못 본 것 같았지만, 저 뒤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던 월은 그가 분명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통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다가 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몇 시간 뒤 다섯 살짜리 여동생 소피가 뜨개질 강아지 인형이 없어졌다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월은 비로소 그가 집어간 것이 소피의 인형이었음을 깨닫는다. 왜 그는 그토록 할머니가 만든 물건을 갖고 싶어 할까? 그 때 월은 처음으로 아까 가지고 온 스웨터가 어딘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소피를 달래려고 스웨터를 입혀줬는데, 덩치가 월보다 한참 작은 소피가 두 팔을 넣는 순간 꼭 맞는 크기로 줄어들었다! 입는 사람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신기한 스웨터는 시작에 불과했다. 할머니 손에서 나온 물건들에 마법이 숨어 있음을 눈치 챈 월은 아빠가 즐겨 신는 양말을 열린 신어보고 발 뒤꿈치에서 용수철 같은 힘이 솟아나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두루마리 휴지를 보관하는 케이스는 더 신기했다.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잃어버린 물건을 떠올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손과 발이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었다. 월은 할머니가 떠준 장갑을 끼면 퐁퐁 얼어붙은 물건을 10분 넘게 쥐고 있어도 손이 절대 차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또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겁을 내는 월에게 할머니는 꼬마 양 인형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겁날 때마다 양을 꼭 누르면 용기가 솟아날 거라고 이야기했었다. 어떻게 할머니는 이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재스퍼는 할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을까?

얼마 후, 공장과 함께 문을 연 재스퍼의 가게에서는 옷부터 장신구, 생활용품까지 뜨개질로 만든 물건들을 팔기 시작한다. 월은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그 물건들이 미묘하게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만든 것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가 할머니처럼 물건에 이상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 그 기술을 악용하여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액수의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조종한다는 것을 알게 된 월은 오래 전 그가 은인이나 다름없었던 할머니를 배신하고 멀리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법 스웨터를 입고 재스퍼를 직접 찾아간 월은 아무 것도 모르는 손님들에게 마수를 뻗치는 것으로 모자라 월에게도 자신이 만든 스웨터를 건네며 입어보라고 권유하자, '바뀌 입자'고 과감히 제안한다. 한참을 망설이다 월이 건넨 마법 스웨터를 받아 든 재스퍼가 팔을 끼운 순간, 뱅처럼 날카롭던 눈이 금방 부드러워지는 것을 본 월은 그 옷의 진짜 주인은 재스퍼라고 확신한다. 가족처럼 재스퍼를 아낀 할머니는 배신을 당하고도 그가 나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둔 것이다. 스웨터를 입고서야 자신의 잘못과 후회를 뉘우치기 시작한 재스퍼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뛰어난 재주를 이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착한 사람들의 마법 같은 힘과 용기를 따뜻하게 그린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카 이볼드(Eika Evalds)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영국 코츠월드에 살고 있다.